



색다르게 접근하는 물리 세계

국내 최초로 병렬처리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물리학자 이순철 카이스트 교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책에서 근원적이고 난해한 물리학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학, 상대론, 양자역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룬다.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자기력이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대성 세상에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사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는 거시계의 복잡성과 무작위, 불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하의 움직임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저자는 아무리 배우도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 등의 원리를 사고 실험과 색다른 접근법으로 집약적으로 소개한다.

〈해나무·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자나무

라오원하오 지음

컴퓨터 활용 쉽게 배우는 한자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능을 활용해 한자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체계화하면서 한자의 기원을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대만 타이베이 상업기술 대학 교수인 라오원하오가 펴낸 '한자나무'는 나무 모양의 그림으로 한자의 관계를 알려준다.

원래 저자는 전기기계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에 정통한 뻗속까지 이공계인 사람이다. 그러나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주특기인 정보처리 기능을 십분 활용했다. 저자가 고안한 '한자나무'는 간단한 방식으로 부수와 중국 문화까지 맛볼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책은 사람의 성장과정과 자세변화, 성별에 따라 총 4장으로 나뉘어 한자를 소개한다. 한자에 정통하지 않는 이들도 저자의 설명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중국 교문자 세계의 색다른 재미에 빠지게 된다.

〈아템포·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세기 문제 논객의 21세기에 대한 경고



20세기를 생각한다

토니 주트·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20세기의 문제적 논객' 역사학자 토니 주트(1948~2010)의 마지막 유작 '20세기를 생각한다'가 출간되었다.

토니 주트는 '전후 유럽에 관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포스트워'의 저자다.

토니 주트는, 명성이 정점에 달해 있던 2008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는다. 근육들이 마비 상태로 쇠퇴해가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6인치씩 먹먹이 줄어드는 감방'에서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표현했다.

토니 주트는 병중에 자신보다 21살 어린 젊은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 미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만난다. 그리고 타계하기 얼마 전까지 20세기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구술한다. 이 구술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연결되었고 토니 주트의 마지막 유작 '20세기를 생각한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책에서 티머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말을 빼고 주트의 이야기만 남겨두었다.)

한마디로 책은 참어 지식인 토니 주트와 젊은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가 20세기에 대해 나누는 대담이다. 역사이자

전기이며 윤리학을 다룬 논리적인 글이기도 하다.

책에는 모두 세 가지의 이야기가 교직되어 있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지식인들이 이해한 권력과 정의, 20세기 중반 런던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토니 주트의 지적 편력, 그리고 20세기 정치사상의 한계와 도덕적 실패에 대한 사색이 그것이다.

20세기는 이미 과거로 흘러가버린 시간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1989년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종언을 고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지난 세기는 불안과 혼돈, 희망과 미래가 혼재된 시기였다.

그 때문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지난 세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니 주트가 20세기라는 거대한 대륙을 탐험하며 치열하게 반추하는 이유다. 그것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역사학자의 테마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에 매혹된 지식인들이다.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말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저자들은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작동 방식을 놀랍도록 설명했다고 본다. 역사는 자기편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진보라고 의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환상은 결국 깨지게 된다. 1936년 스탈린의 시범재판, 1939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1956헝가리 봉기 그리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에 대한 소련의 무

력집압은 지식인들에게 환멸을 주었다.

주트는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타인에게 미래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거나 희생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악에 지나지 않았다.

저자들의 두 번째 관심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었다. 시장의 불안정을 인식한 케인스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하이에크는 의도가 좋아도 국가 개입은 나쁜 결말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쳐와 레이건은 하이에크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토니 주트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복지 국가가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두 역사학자의 대화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로 들린다. 유럽의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외부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능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공포심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저자들은 공공성의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한다.

"우리가 찾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진실이 하나 있다. 자제와 완전한 이 진실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다른 진실들은 마치 블랙홀 돌레를 도는 더 밝고 더 새롭고 더 무거운 별처럼 이 진실의 궤도를 돈다... 그렇지만 이 책이 투쟁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정신적 삶에 관한, 그리고 깨어 있는 삶에 관한 책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과는 많이 다른 미국법을 파헤치다



미국 법 총 정리

메리 리 지음

법률처럼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도 없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겨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머리를 만져주는 친근한 표현 방법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초기에 오해를 사는 일이 잦은 것도 서로 다른 법 때문이다.

미국의 변호사 메리 리의 '미국 법 총 정리'는 어렵게 느꼈던 미국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회사, 유학생들, 민주주의를 배우는 정치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부터 시작하여 가정법까지 다루고 있다.

저자 메리 리는 저서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펴내는 등 일명 'BBK 사건'으로 국내에 먼저 알려졌다. 그녀는 워싱턴 벤처스 관련 피해를 10여 년이 넘도록 변호했다.

책은 특히 명예훼손, 사기, 과실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규제에

대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법률 다툼을 먼저 소개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미국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미국 법원의 체계와 연방법원 주 법원의 특징과 미국의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이 밖에도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 법원의 소송단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부동산법, 결혼과 이혼, 상속법, 가정법 등을 소개한다. <다산처방·1만44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아리랑'



아리랑 청소년판

조호상 지음

4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이 1995년 완간 이후 20년 만에 청소년을 위한 소설로 개작됐다. 청소년 소설 작가 조호상이 원작의 이야기 구조에 따라 충실하게 각색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장면과 인물 묘사, 대화, 사건 전개 등을 다듬어 재탄생시켰다.

원작과 같은 12권으로 구성된 아리랑 청소년판은 권 당 평균 원고지 155매 내외의 분량을 500매 내외로 줄이되 원작의 스토리라인은 그대로 살렸다. 여기에 화가 백남원이 현지답사 및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작품 속의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재현해 낸 그림 208컷이 수록되었다.

일제 강점기 침략 직전인 1904년부터 광복을 이룩한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오욕과 투쟁을 그린 민족의 역사 교과서답게 소설적 재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적 요소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해냄·각 권 1만1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병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커널로그 다량하고 저렴한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